

구원의 방법과 안전과 확신과 기쁨

성경: 요일5:12-13

우리는 집중적으로 성화 공부, 성화는 구원 다음에 오는 것, 특별히 성화는 구원의 기쁨과 관련이 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지식과 안전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들이 없으면 성화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목사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 이것들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150년 전, 영국에 조지 커팅이라는 형제가 살았다. 1843-1934년까지,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 〈Safety, Certainty, and Enjoyment〉, 〈 〉 오늘 소개하려 한다. 사랑침례교회 소책자, 〈구원의 기쁨과 확신〉

구원의 방법과 안전과 확신과 기쁨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라는 역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거쳐 영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순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 여정이 나그네길이라면 당신은 다음의 세 대열 중 한 대열에 속한 채 여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대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제2대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

제3대열: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제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열에 속한 채 여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인간 모두를 향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늘 장기적으로 계획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에 놓인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무시한 채 마침내 큰 구렁 저편에 있는 지옥에서 발버둥 치게 될 몸서리치는 불행을 도외시한 채 인류는 이제 불행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재물을 잃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게 된다면 이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당신에게 세 가지를 확실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원의 방법(사도행전 16장 17절)
2. 구원의 지식, 안전, 확신(누가복음 1장 77절)
3. 구원의 기쁨(시편 51편 12절)

얼핏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그것들은 각각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방법,

지식, 안전, 확신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르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1. 구원의 방법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3장 11-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봅시다.

유월절 사건 기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곁에 서 있는 어린 나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이 말합니다.

“사정을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사장님, 제발 이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약하고 어린것이 제 나귀의 첫 새끼입니다. 저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양으로 대속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을 대신해서 내어 줄 어린양이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생명을 살려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것마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됩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속할 어린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린양이 죽든지 아니면 반드시 나귀 새끼의 목을 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젠 다 틀렸군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군요.”

그때 옆에서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내가 해결해 보겠네. 언덕 너머 우리 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말을 잘 들어서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다네. 내가 부지런히 가서 그것을 끌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게나.”

(*) 마침내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그가 데리고 온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양’이 죽어서 그 피가 제단 아래 뿌려지고 그 몸은 불살라졌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의 나귀 새끼를 데리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목을 꺾지 않아도 되었으니 참 기쁘겠소. 어린양이 대신 죽었으니 나귀는 털끝만큼도 다칠 필요가 없소. 당신의 친구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군요.”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의 머리를 꺾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요구하시는 공정한 판단입니다. 이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그의 친구가 예비해 주었던 어린양 같은 ‘대신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자신이 직접 예비하신 어린양 즉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라(요1:2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넘겨지셨으며 죄 있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롬4:25).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예! 저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받을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다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완전하신 희생물이 되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당신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의문을 가진 채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저의 행실이나 능력 또는 율법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공로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제 마음은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배와도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닻을 배 안에 매어 놓고 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배를 안정시키려면 배의 밖에 탄탄한 곳을 골라 닻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덕을 부리는 느낌, 감정, 기분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 하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2. 구원의 지식과 안전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혹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조금 바꾸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12절을 읽고 나서 13절을 읽어 보자.

(*)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느낌들을 준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위의 구절과 아래 구절을 대조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 밤 곧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던 밤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맏아들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출애굽기 12장 참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두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첫째 집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죽을 지경이 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집의 맏아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밤에 파멸시키는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갈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고 했으므로 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온 가족이 안절부절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파멸시키는 천사가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가고 새벽이 온다면 그때는 제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억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길고 무서운 밤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양을 잡고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첫째 집을 떠나 그 옆집으로 가 봅시다. 언뜻 보기에 그 집의 분위기는 첫째 집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처럼 엄숙한 밤에 이 같은 평안함이 있다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작업반장의 잔인한 채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밤에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맏아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거든요.”

“바로 옆집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피를 뿌린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출12:13). 우리 하나님은 밖에서 그 피로 인해 만족하실 것이고 우리는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안전할 것입니다.”

문에 뿌려진 피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문에 뿌려진 이 피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이 두 집 중에서 어느 집 맏아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평안히 거하고 있는 둘째 집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틀렸습니다. 두 집 모두 안전합니다.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밖에 뿌려진 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지 안에 있는 그들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의 확신의 복을 누리려면 당신의 속에서 나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잠깐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도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자기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허탄한 생각으로 인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초조함을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불신자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말씀이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100% 확실함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나는 어떤 다른 논쟁도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청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다 다음을 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역장이 철도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 이 소식을 전해 준 그 사람은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겠지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은 그 사람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당신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습니까?”라고 반문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기꾼의 말을 믿어 줍니까?”

이로 보건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우리 속의 우리 믿음이나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전해 준 사람의 됴됨이를 보고 그 말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와서 역장이 화물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정말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말을 조금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 내부의 믿음이나 감정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알려준 사람에 의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같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당신은 “자네 말이라면 여부가 있겠나? 딱하게도 역장이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했군!”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친구의 말을 고스란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건 현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당신의 맘속에 그럴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그분 즉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복음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속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 구속 사업을 통해 이미 당신과 저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구원의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일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 구원의 기쁨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이나 다름없이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위안이나 기쁨을 송두리째 잃게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살펴봅시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에 의해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도 육신이라 불리는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옛 성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악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육신이라 불리는 옛 성품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육체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언행 심사에 있어서 육신적인 모든 일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걸을 때 성령님께서서는 성도의 심령 속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 기쁨, 화평 등과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믿은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며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열매들이 부족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업과 당신의 구원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당신의 세상에서 걷는 것과 기쁨 역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일이 잘못되면 당신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났다.”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기록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기록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심령에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부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제멋대로 행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면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확신과 관련시켜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으므로 절대로 안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당신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일을 저지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실제적으로 중단됩니다. 바로 이때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판단하고 당신의 죄들을 고백하면 교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자녀의 언행과 표정에서 이 사실을 역력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리광을 부리며 태연자약하던 아이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서려 있고 행동이 어색하며 자꾸만 부모의 낫을 피하려 들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자백하여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쉽사리 자백하지 않은 채 울며 버틴다고 부자간의 교제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겸손하게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순간부터 자백하고 용서를 받기까지 이 아이에게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간의 관계마저 끊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 관계는 출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자간의 귀한 교제가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고 달래 주며 위로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에야 비로소 이 아이는 다시금 부모와 스스럼없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인 사건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뒤에 다윗은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시51:12)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진리를 잘 나타내 줍니다.

만일 당신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것이 확실한데 잠깐이라도 심령이 답답하며 기쁨이 없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을 반성해 보십시오. 당신에게서 기쁨을 앗아간 도둑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려서 왜 내가 기쁨을 잃게 되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자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노략질 하도록 부주의 하고 나태했던 자신을 깊이 뉘우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전3:14).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벧전1:24-25).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터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결코 변치 아니하시기에 당신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생 나그넷길 3가지 대열의 사람들

제1대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제2대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

제3대열: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당신은 어느 대열에 서서 인생의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당신도 이제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